



편집국에서

하리수 등장 20년, 바뀐 게 없다



서선옥 편집국장 직무대리

성전환 수술을 거쳐 남성에서 여성으로 신체를 바꾸고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트랜스젠더 한 명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대학 입학학을 위한 등록을 끝내 포기했다.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반진강하고도 폭넓은 반발 때문이었다고 한다. 방학 중임에도 재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입학처에 항의하고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여론몰이를 했다고 한다. 뒤늦게 이 대학 동문 일부가 지지 선언을 내며 포용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여부족이었다.

결국 문제의 트랜스젠더는 “내 삶은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시되고 반대를 당한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당연한 목표조차 누군가에게는 의심과 조사의 대상”이라며 속대 진학의 뜻을 접었다. 그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성별 지정 허가를 받아내 법적으로는 여대 지원에 하자 없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

한 동의와 지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만큼 젠더 이슈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높은 벽이 확인된 셈이다.

입학 반대의 뼈대가 된 논리는 20년 남짓 남성으로 살다가 성전환을 해서 굳이 여대에 들어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남녀공학에 입학해 커밍아웃하지 않고 조용하게 섞여서 대학 생활을 하면 되는데, 굳이 여대를 선택한 것은 트랜스젠더 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으며, 숙명여대가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성으로 굳이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거쳐 여군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강제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유사하다.

당분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기존 인식의 틀과 규범의 잣대에 맞춰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수순을 답

습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이들 사건을 계기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정체성으로 지닌 우리 사회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차별배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인 ‘메리엄 웹스터’는 작년말 ‘2019년의 새로운 단어’로 ‘they’를 선정했다. 여기서 ‘they’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인칭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로 사용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단수인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성 소수자에 대한 사람들의 달라진 사고가 일상의 언어영역까지 확장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주 미국 민주당 아이오와 주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깜짝 1위를 한 피트 부티지 후보는 동성애

자다. 경선까지 온 것만도 예상은 깬 일인데, 첫 경선에서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최고도 국가인 미국 사회도 이제 성 소수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소수자에 대해 ‘성적 취향’이라는 말 대신에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지도 오래다.

‘성적 지향’이라는 맥락에서 속대 합격생이 남성으로 살다가 신체만 여성으로 탈바꿈했다는 인식은 부정확하다. 오히려 성적 정체성은 여성인데 남성 신체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거쳐 자기 성 정체성에 맞는 신체를 비로소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 당장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젠더 이슈에 열려 있는지 반성해 보자.

나아가 새로운 젠더 이슈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제1호 트랜스젠더 연예인이었던 하리수(본명 이경은·가수 겸 배우)가 등장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의 예명은 발음이 비슷한 ‘하이슈’에서 따왔다고 한다.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이슈인 성 소수자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론화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社 說

후안무치한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을 ‘사태’라고 표현해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에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전박한 역사 의식의 발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모교인 종로구 성균관대를 찾았다. 주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먹던 중 자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내가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다. 1980년, 그때 뭐, ‘하이트 무슨 사태’가 있었죠. 학교가 휴교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또 여야 정치권이 5·18에 대한 전박한 역사 의식의 발로이며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가관이다. 그는 종로지역 당원들과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80년도 내가 4학년 때, 그 때의 시점을 생각한 것”이라며 “광주와 전혀 관계 없는

말이다”고 항변했다. 19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돌려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작년 5월 황 대표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주에 내려와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광주를 찾고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했던 발언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의 속내에 잠재된 후안무치한 역사의식이 그대로 보인다.

황 대표의 발언은 5·18 정신을 진정히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변곡점을 만든 5월 광주에 대한 빈약하고 허망한 인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의 이같은 인식은 지금도 5·18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극우 보수세

당원들과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80년도 내가 4학년 때, 그 때의 시점을 생각한 것”이라며 “광주와 전혀 관계 없는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점검으로 막아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다. 최근 기온이 영하권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곧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태동하는 봄이 우리를 앞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온 대지에 봄의 기운이 퍼지면서 찬 기운에 꽁꽁 얼었던 모든 것이 녹기 시작하면서 각종 공사장, 도로절개지, 축대, 옹벽 등 겨울 내내 결빙되었던 곳들이 지반이 약화되면서 붕괴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하는 사람도 부쩍 증가하는데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는 음식 커브길이나 바위 등 절개지가 있는 도로를 지날때는 낙석사고에도 주의해 운전 해야한다.

봄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리 화사한 계절만은 아니다. 지금부터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해빙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따뜻한 봄을 맞이하자.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작업장에서 화재예방에 철저히 하자

지난 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요즘은 건조하고 화기취급이 많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때이다. 특히, 건축 공사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부적절한 운영과 작업자 과실로 인한 화재사고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15~'19) 공사장 등에서 용접·절단·연마 중 26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하였고 해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용

접·용단작업시의 불꽃이 가연물이나 인화성액체 등에 착화발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화재예방에 대한 정보·기술 및 사업주·근로자의 안전관리 인식 부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화재예방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조치(가연물 제거 등)를 이행하지 않는 등이다.

위험작업은 사전허가와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시하며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화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자.

김양기 / 보성119안전센터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